

제주도 '구덕'과 '차룽' 이름*

김 순 자**

차 례

1. 서론
2. 제주도 '구덕' 이름
 2. 1. 재료에 따른 이름
 2. 2. 사용 방법에 따른 이름
 2. 3. 용도에 따른 이름
 2. 4. 크기에 따른 이름
 2. 5. 모양에 따른 이름
3. 제주도 '차룽' 이름
 3. 1. 크기에 따른 이름
 3. 2. 용도에 따른 이름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제주도 '구덕'과 '차룽'이 재료와 사용 행위, 용도, 크기, 모양에 따라 분화된 이름을 분류해 고찰한 것이다. '구덕'은 표준어 '바구니'와 기

* 이 논문은 영주어문학회 2009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능이 비슷하고, '차룽'은 표준어 '채룽'과 비슷하다.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주로 '족대, 수리대'라 부르는 대를 쪼개서 '구덕'을 만들어 썼다. '구덕'은 또 순비기나무나 '정동'(덩덩이덩굴), 다래나무 따위의 덩굴을 이용해서 만들어 썼는데 대부분은 대를 쪼개서 만들어 썼다. 여기에서 '구덕'이라 함은 '대오리 따위로 바닥을 네모나게 해서 안이 깊숙하게 결어 만든 일종의 바구니'를 말하는데, 육지의 바구니와는 모양이나 사용 방법·재료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제주 사람들은 물건을 나를 때 머리에 이고 나르는 일이 없고, 등에 지고 나르는 게 일반적이다. 육지의 바구니가 둥근 것과 달리 제주도의 '구덕'은 등에 지고 다니기 쉽게 네모나게 만든 것이 한 예이다. 제주에 귀양 왔던 김정(金淨, 1486~1521)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부이부대(負而不戴)'라 해서 제주의 풍습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고광민(1999)은 『제주학』 3호에 실은 「구덕과 차룽」에서 다음과 같이 제주도 구덕 특징을 정리한 바 있다.

한국 본토의 바구니는 그 바닥이나 몸통이 둥그렇다. 그 아류(亞流)인 도시락도 그렇게 만들었다. 이는 다름 아닌 운반문화의 차이 때문이다. 두상운반(頭上運搬)에 익숙한 본토에서는 대그릇을 둥그렇게, 그리고 배부운반(背負運搬)에 길들여진 제주도 사람들은 직사각형 바닥의 대그릇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이다. 주변 국가와 대비하여 보아도 제주도의 '구덕'과 '차룽'은 유별난 존재다.¹⁾

'차룽'도 '구덕'과 함께 제주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던 대나무그릇이다. '구덕'이 물건을 담거나 넣어서 운반할 때 많이 사용했다면, '차룽'은 밥이나 떡, 고기 등 음식물을 넣는 그릇 역할을 했다.

1) 고광민, 「'구덕'과 '차룽」, 『제주학』, 제주학연구소, 1999, 196쪽. 고광민(2000)은 「한국의 바구니」(제주대학교 출판부) 책머리에서 "강원도 지방에 싸리나무로 만든 직사각형의 바구니가 많았다."며 네모난 바구니가 제주에만 있었다고 정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제주도 '구덕'의 네모난 것은 제주의 운반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 1> 구덕과 차룽의 재료인 이대.

'구덕'은 지역에 따라서 '바구리', '바굼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쓰임새나 모양, 재료, 크기,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지어 불렀다. 예를 들어 작은 '구덕'은 '돌랭이', '돌랑지', '조레기', '조락', '돌랑바

구리' 등이 쓰이는데, 이는 표준어 '종다래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차룽'도 마찬가지이다. '차룽'은 가는 대오리로 네모나게 해서 뚜껑 있게 결어서 만든 그릇이다. '차룽'은 '채룽', '상지', '고령', '고랑'이라고도 부른다. '고령'은 채룽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구덕'에 대한 '돌랭이, 돌랑지', '조락(력), 조레기'처럼 크기가 작은 채룽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구덕'과 '차룽' 이름에 대한 연구 자료로는 고평민(1999, 2000)이 있다. 고평민(2000)은 『한국의 바구니』에서 본토와 제주도의 바구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대오리나 싸리 따위의 채로 결은 바구니와 채룽 외에도 소쿠리, 채반 따위의 그릇과 짚으로 결은 멍둥구미 등도 포함해 풍습을 살펴본 후에 '운반용 바구니', '의생활 바구니', '식생활과 바구니', '씨앗 보관용 바구니', '과중 바구니', '시비와 바구니', '곡식 갈무리와 바구니', '곡식 저장과 바구니', '채취용 바구니', '병아리 간양 바구니'로 나눠 쓰임과 용도, 재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죽세공으로 유명한 제주시 도련2동, 서귀포시 호근동, 남원읍 신흥2리 지역에서 조사한 '구덕'과 '차룽' 이름을 대상으로, 이들 이름들이 갖는 의미를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구덕'과 '차룽' 이름의 특징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과 한경면 조수2리에서 조사한 '구덕'과 '차룽' 이름, 그리고 문헌 자료 속의 이름들을 추가해 그 이

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그에 담긴 문화 요소와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둔다.

2. 제주도 '구덕' 이름

'구덕'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덩이를 뜻하는 '굳'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덕'이 붙어서 형성된 어휘가 아닌가 한다.²⁾ '구덕'이 구덩이를 뜻하는 어휘임은 전남방언과 경남방언의 '구덕'³⁾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구덕'은 형태가 안으로 깊게 파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구덕' 이름은 2009년 7월말 현재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와 문헌 자료를 정리한 결과 82가지다. 조사 지역을 넓히면 '구덕' 이름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지역별로 '구덕' 이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제주시 도련2동**: '깨기구덕', '대바구리', '동이구덕', '떡동이', '멜구덕', '물구덕', '바농상지구덕', '조막구덕', '사돈구덕', '서답구덕', '소포구덕', '아기구덕', '양태구덕', '중구덕', '중질구덕', '질구덕', '큰ㄱ는대구덕', '큰곤대구덕', '탕간구덕', 'ㄱ는대구덕', '곤대구덕', '송키구덕', '송키바구리' 등 23가지.

○ **서귀포시 호근동**: '들름구덕', '떡구덕', '떡돌랑지', '떡돌랭이', '멜구덕', '멜추락, 멜추럭', '물구덕', '세답구덕', '애기구덕', '조락·조레기', '질구덕', '테

2) '굳'과 '덕'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문헌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 굳 ○ 이를 니르면 一切 世間애 天人 阿脩羅ㅣ 다 놀라아 疑ㅅㅎ며 增上 慢比丘ㅣ 큰 구데 떠러 디리라. 『석보상절 13:45』/ ○ 그 짜히 平正ㅎ야 노푼며 ㄴ가랏며 구디며 두들기 업서. 『월인석보 13:62』/ ○ 그 짜해 굳과 沙磧이 짜히 ㄷ외니 또 因行이 ㄱ돌씩 니라. 『월인석보 12:10』/ ○ 坑 굳 坑 坳 굳 감 『훈몽자회 하:8』 △ 덕 ○ 如來ㅅ 모매 터럭 구무마다 放光ㅎ샤 三韃 大韃世界를 비취시니. 『석보상절 11:1』/ ○ 觀 音을 念흔 히ㅄ로 흔 터럭도 ㅎ야디디 아니ㅎ리니. 『석보상절 21:3』/ ○ 저고미 주먹 ㄱ튼니를 爲ㅎ야 브터 보내라. 『두시언해-초 17:37』

3)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구덕'은 구덩이의 방언(경남, 전남)이라고 되어 있다.

왁구덕, '좁녀구덕', 'ㄴ는대구덕', '근대질구덕', '근대구덕', '벗른구덕', '출구덕', '바농상지' 등 21가지.

○ 남원읍 신흥2리4): '돌랑바구리', '질구덕', '매역구덕', '물구덕', '대바지구덕', '큰ㄴ는대구덕', 'ㄴ는대구덕, 근대바구리', '중구덕', '조례기(조라기)·조락(조력)·조락바구리', '출구덕', '송키구덕, 송키바구리', '벗른구덕', '좁진대구덕', '영긴대구덕', '떡돌랭이', '아기구덕', '바농구덕', '바농상지' 등 22가지.

○ 제주시 건입동: '갯것바구리', '대바구리', '동이구덕', '동이바구리', '멜구덕', '빨랫바구리', 'ㄴ는대바구리', '벗른바구리', '스답바구리', '송키바구리' 등 10가지.

○ 한경면 조수2리: '물구덕', '바농상지', '아기구덕, 애기구덕', '지물구덕', '질구덕', '큰대구덕', '풀볼른구덕', '풀볼른돌랑지', 'ㄴ는대구덕', 'ㄴ는대질구덕', 'ㄴ는대돌랑지', '스답구덕', '송키구덕', '송키돌랑지' 등 14가지.

○ 기타 마을 또는 자료 속의 구덕 이름: '쾌기질구덕', '쾌기조례기', '주근대질구덕', '서답구덕', '아기구덕', 'ㄴ는대구덕', '뿔방에ㄴ는대구덕', '말찬부지ㄴ는대구덕', '석뿔부지ㄴ는대구덕', '토신제ㄴ는대구덕', '풀벗른구덕', '정의중구덕', '동의바구리', '졸갱이조례기', '졸갱이구덕', '톨구덕', '고사리구덕', '팻구덕', '서대구덕', '바룻구덕' 등 20가지.

여기에서는 '구덕'을 1) 재료, 2) 사용 방법, 3) 용도, 4) 크기, 5) 모양에 따른 이름 등으로 분류해 그 특징을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분류된 이름 가운데는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 '구덕' 이름은 조사 마을과 조사자에 따라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다.

4) 남원읍 신흥2리 '구덕' 이름은 필자가 조사한 내용과 고광민(2000)의 『한국의 바구니』에 수록된 이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1. 재료에 따른 이름

이 절에서는 '구덕'을 결는 재료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구덕'은 대나무를 쪼갠 대오리로 결은 것을 말한다. 별도로 재료 이름을 앞에 붙여서 '대구덕', '대바구리'라 부르기도 한다. '대구덕'과 구분하기 위하여 '주근대⁵⁾질구덕', '줄쟁이⁶⁾조레기', '너던⁷⁾구덕'과 같이 재료명을 붙여서 지어진 '구덕' 이름도 있다. 대오리의 굵기에 따라서 굵게 한 '영긴구덕'과 가늘게 한 '긔는대구덕, 좁진대구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1.1. '대구덕'과 '대바구리', '큰대구덕': 바구니의 재료인 '대'에 '구덕'과 '바구리'를 붙여서 지은 이름이다. '큰대구덕'은 '큰+대+구덕'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큰 대오리로 안이 깊숙하면서도 네모나게 결은 그릇'이라는 뜻이다.

2.1.2. '주근대질구덕': '주근대질구덕'은 '주근대+질+구덕'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주근대'는 섬다래의 제주어로, '주근대'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질구덕'은 '지고 다니는 구덕'으로, 이 구덕은 '섬다래로 만든,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그릇'이다.

2.1.3. '너던구덕': '너던구덕'은 다래나무 뿌리인 '너던'을 결어서 만든 구덕이다.

2.1.4. '줄쟁이구덕'과 '줄쟁이조레기': 이 구덕들은 '줄쟁이+구덕', '줄쟁이+조레기'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구덕의 재료가 '줄쟁이' 즉 으름덩굴을

5) 섬다래를 말한다.

6) 으름덩굴을 말한다.

7) 다래나무의 뿌리를 말한다.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줄쟁이'는 지역에 따라서 '유름, 줄'이라고도 부른다. '조례기'는 작은 구덕을 뜻한다. 따라서 '줄쟁이구덕'은 으름덩굴을 재료로 해서 만든 그릇이고, '줄쟁이조례기'는 으름덩굴을 가지고 작게 결어서 만든 구덕을 말한다.

2.15. '곤대구덕, ㄹ는대구덕, ㄹ는대바구리, '좁진대구덕', '서대구덕', '큰ㄹ는대구덕, 큰곤대구덕', '곤대질구덕, ㄹ는대질구덕', 'ㄹ는대돌랑지':



<사진 2> ㄹ는대구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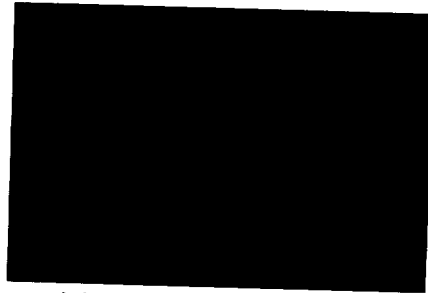


<사진 3> ㄹ는대구덕과 제물차롱.

'곤대구덕'과 'ㄹ는대구덕', '곤대바구리', '좁진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구덕'을 말한다. '곤대, ㄹ는대, 좁진대'는 가는 대오리를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큰ㄹ는대구덕'과 '큰곤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은, 크기가 큰 구덕이고, '곤대질구덕, ㄹ는대질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은, 지고 다닐 때 쓰는 구덕'을 말한다. '서대구덕'는 '서대+구덕'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릇 명칭이다. '서대'는 '세대' 즉 가는 대오리를 말한다. '세대'는 가는 대오리로 결은 샷갓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세대샷갓'에서 확인된다. '곤대구덕'은 품질이 가장 뛰어난 구덕을 말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아덜이 장개 강 메뉴리를 보게 되면 씨어머니가 제물상지허고 곤대구덕 하나허고 혼 불 사준다(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제물상자하고 가는대구덕 하나하고 한 벌 사준다.)"8)고 한다. 그만큼 '곤대구덕'과 '제물상지'는 그 쓰임새가 많은 대그릇이었다.

2.1.6. **영긴대구덕**: ‘영긴대구덕’은 ‘영기+ㄴ+대+구덕’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영긴-’은 표준어 성기다에 대응하는 제주어 ‘영기다’의 어근 ‘영기-’에 관형형어미 ‘-ㄴ’이 붙은 형태다. ‘영기다’는 ‘물건끼리의 사이가 뜨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질구덕’, ‘송키바구리’, ‘물구덕’ 따위가 ‘영긴대’로 만든 대표적인 구덕이다.

2.1.7. **‘풀바른구덕, 풀볼른구덕, 풀볼른돌랑지’, ‘바른구덕, 바른바구리’:**



<사진 4> 풀바른구덕.

‘풀바른구덕, 풀볼른구덕’은 대나무로 결은 구덕이 혈면 종이나 형겅 따위에 풀을 발라 붙여서 만든 구덕을 말한다. 이 구덕은 주로 곡식이나 가루 따위를 넣을 때 사용한다. ‘풀볼른돌랑지’는 ‘풀+볼른+돌랑지’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여기에서

‘돌랑지’는 ‘작은 구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돌랑지’ 대신 ‘돌랭이’라고도 한다. ‘돌랭이’는 작은 발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풀볼른돌랑지’는 종이나 형겅 따위를 발라서 만든 작은 대구덕’을 말한다. ‘바른구덕’과 ‘바른바구니’는 ‘(풀을) 바른 바구니’라는 뜻이다. ‘풀’을 발라서 만든 바구니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 바를 때는 ‘가시리풀’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가시리’는 표준어 ‘풀가사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2 사용 방법에 따른 이름

‘구덕’ 이름은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붙여지기도 한다.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구덕이라는 의미에서 ‘출구덕’이라는 이름이, 어깨에 메

8) 김희창(1941년생, 서귀포시 호근동), 2008년 9월 15일 구술.

고 다니는 구덕이어서 '멜구덕, 멜구럭, 멜추럭(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또 들고 다니는 구덕이라고 해서 '들름구덕', 지고 다니는 구덕이어서 '질구덕'이라고 불렀다.

2.2.1. '출구덕': '출구덕'은 '허리에 차는 구덕'으로, 바다에서 해초를 캘 때, 또는 들에서 나물 따위를 캘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구덕이다. 구덕을 허리에 차면 양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구덕은 나물 따위를 캐서 담을 때도 쓰지만 나물 따위를 씻어 건져서 물을 뺄 때도 사용한다.



<사진 5> 사진 앞에 보이는 소녀의 허리에 차고 있는 바구니가 '출구덕'이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서 발췌.

「제주어사전」(1995)에는 “대바구니의 한 가지. 질구덕보다 작은 보통 크기의 대바구니. 해녀 연장과 해산물을 넣고 해녀작업 하러 바다를 드나들 때 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허리에 차고'라는 말을 덧붙여 뜻 풀이를 하면 더욱 그 뜻이 분명해질 것이다.

2.2.2. '멜구덕, 멜구럭, 멜추럭, 멜추락': 이 구덕은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잡이 나갈 때 가지고 다니는 구덕이다. 구덕 가장자리에 끈을 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멜+구덕(구럭), 멜+추럭(주락)'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떡등구미를 제주에서는 '멜망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멜추럭(락)'의 '멜-'은 '메다'의 어간 '메-'에 관형형어미 '-르'이 결합된 형태이고, '주락'은 '조락', '조레기'의 이형태로서, 보통의 '구덕'보다 작은 그릇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멜구덕'보다 '멜추럭'이 크기가 작은 구덕으로, 예전에 바다에 낚시질하러 갈 때 어깨에 메고 다녔던 바구니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서귀포시 서호동에서는 '멜추럭(멜추락)'이, 제주시 건입동은 '멜구럭', 제주시 도련2동에서는 '멜구덕'이라 부르고 있다.



<사진 6> 들름구덕. 하창곤 사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서 발췌.

2.2.3. 들름구덕: ‘들름구덕’은 ‘들르다’(들다)의 어간 ‘들르-’에 명사형 어미 ‘-ㅁ’과 ‘구덕’이 합쳐서 이루어진 어휘로, 들고 다니는 구덕을 말한다. ‘근대구덕’이나 ‘떡구덕’과 같이 옆구리에 끼고 들고 다니는 구덕이 ‘들름구덕’에 해당한다.

2.3.4. 질구덕: ‘질구덕’은 ‘지다’의 어간 ‘지-’에 관형형어미 ‘-ㄹ’+‘구덕’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지고 다니는 구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7> 질구덕.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서 발췌.

‘질구덕’은 물건을 안에 넣고 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든 구덕이다. 물을 길으러 다닐 때 쓰는 ‘물구덕’, 잡녀들이 바다에 물질하러 갈 때 지고 가는 ‘좁네구덕, 해녀구덕’, 빨래하러 갈 때 빨랫감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빨랫바구리, 세담구덕, 서담구덕, 스담바구리’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용도나 크기를 나타내는 어휘에 ‘-질구덕’을 붙여서 만든 이름들도 있다.

2. 3. 용도에 따른 이름

구덕 이름이 다양한 것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채롭게 분화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퀘기구덕’, ‘퀘기조레기’, ‘퀘기질구덕’은 모두 ‘퀘기’ 즉

고기를 담거나 운반할 때 사용하는 구덕인데, 용도나 크기,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경우다. 여기에서 '퀘기'는 바닷고기를 말한다. 제주도 '구덕' 이름 가운데는 이처럼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1. '퀘기구덕, 퀘기조레기, 퀘기질구덕': '퀘기구덕'은 바닷고기를 잡거나 담아서 운반할 때 쓰는 구덕이고, '퀘기조레기'는 '퀘기구덕'보다 작은 구덕을 말한다. 또 '퀘기질구덕'은 바닷고기를 넣어서 등에 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구덕 이름이다. 구덕의 이름을 통하여 그 크기와 사용 방법 등을 가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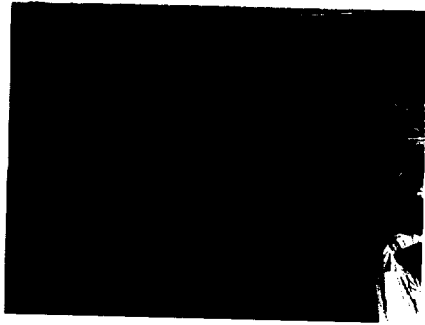
2.3.2. '갯갯바구리, 바룻구덕': '갯갯바구리'와 '바룻구덕'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구덕으로, 주로 어부들이 쓰는 그릇을 말한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멜구덕'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라면, '갯갯바구리, 바룻구덕'은 쓰임새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갯갯'은 '개갯, 개'라고도 말하는데, 바다, 또는 '바다의 것을 넣는'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바룻'은 '바닷고기'를 뜻하는 '바룻퀘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바다를 뜻한다. '바룻구덕'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구덕이다. '바룻'은 또 '바르' 형태로도 나타난다. '바르'는 '오분자기'를 뜻하기도 하고 해산물 일체를 뜻하기도 한다. '바룻칠하다, 바룻잡다'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 따위를 잡는다.'는 의미다.

2.3.3. '대바지구덕': '대바지'를 넣어 지고 다니는 구덕이다. '대바지'는 '아이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쓰는 자그마한 허벅 모양의 물동이'로 '대배기'라고도 부른다.

2.3.4. '떡구덕, 떡동이, 떡돌랑지, 떡돌랭이, 지물구덕': '떡구덕, 떡동이, 떡돌랑지, 떡돌랭이'는 모두 '떡'과 관련한 구덕이다. '떡동이'는 구덕이

둥이처럼 모양이 둥그스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랑지'와 '돌랭이'는 '작은'이라는 의미로 쓰는 어휘로, '떡돌랑지'와 '떡돌랭이'는 '떡을 담은 작은 구덕'을 말한다. '돌랭이'는 '발빼기'를 가리킬 때도 쓰는 것처럼, '돌랭이, 돌랑지' 속에는 '작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지물'은 '제물'을 가리키는 제주어로서, '지물구덕'은 '제물을 담는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제주에서 '지물'은 보편적으로 떡을 가리킨다.



<사진 8> 제주시 도련2동 故 변구서옹이 곁은 '구덕'과 '차롱'들이다. 사진 가운데에 놓인 구덕은 '아기구덕'이며 그 안의 '구덕'과 가운데 구덕이 '떡동이다. '떡동이' 뒤에 있는 '구덕'은 '탕전판이'를 올려놓을 때 쓰는 '탕전(탕간)구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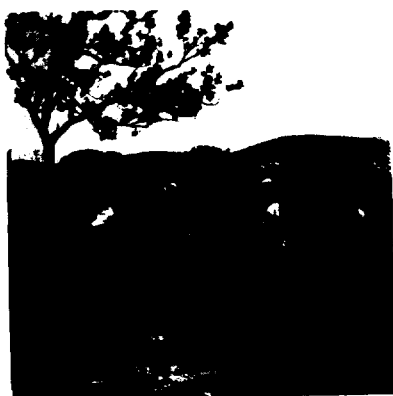


2.3.5. '물구덕':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구덕'이다. '물구덕'은 '물 길는 허벅을 넣어 지고 다니는 구덕'이다. 아이들이 물을 길 때 사용하는 '구덕'은 '대바지구덕' 또는 '대배기구덕'이라고 한다. 똑같이 물을 길어 나를 때 물동이를 넣어 지

<사진 9> 물구덕.

고 다니는 구덕이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은 '물구덕'이라는 용도를 앞세워 이름을 붙였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작은 물동이'에 해당하는 제주어 '대바지·대배기'를 앞세워 이름을 붙였다. 사용 방법으로 구분할 때 '질구덕'에 해당하는 구덕이다.

9) '아주 작은 발을 일컫는 말'이다. 지역에 따라서 '드로갱이, 토갱이, 토강지, 돌쟁이, 드로'라고도 한다.



<사진 10> 물구덕 진 여인의 모습.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서 발췌.

2.3.6. '바농상지, 바농상지, 바농상지구덕', '바농구덕': '바농상지, 바농상지, 바농상지구덕'은 '바농', 즉 바늘과 관련 있는 구덕이다. '바농상지, 바농상지'의 '바농·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대응하는 제주어고, '상지'는 표준어 '상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구덕' 대신 상자라는 말이 쓰인 것이 독특하다. '바농상지'는 '반질고리'의 제주어로, '구덕'이 반질고리로 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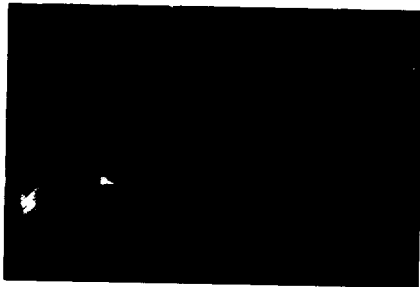
'바농상지구덕'은 '구덕'을 이용해 반질고리로 사용했음을 알게 해준다. "옛 북제주군 지역은 떡구덕이지만 서귀포에서는 바농상지로 사용했지. 서귀포에서는 떡구덕 대신 계물차룻을 사용했어."¹⁰⁾라는 증언을 통해 '바농상지'는 '떡돌랭이'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바농상지'는 "우린 이녁 냥으로 절아지는 거난 옛날 그 구덕허영 시방 불량은에 바농상지로 썼주. 바농구덕."¹¹⁾에서 보듯이 '바농구덕'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며, '구덕' 위에 천 따위를 풀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7. '빨랫바구리, 서답구덕, 새답구덕, 스답구덕, 스답바구리': 이것들은 빨래를 할 때 빨랫감을 지고 다니는 그릇이다. '서답, 새답, 스답'은 모두 '빨래'의 다른 이름이고, '구덕'과 '바구리'는 표준어 '바구니'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이 '구덕'들은 모두 '빨래'와 관련 깊은 그릇 이름이다. 사용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질구덕' 종류에 해당하는 그릇이다.

10) 김희창 구술.

11) 현재숙(1920년생, 남원읍 신흥2리) 2009년 6월 23일 구술.

2.3.8. '사돈구덕': 제주에서는 혼사나 장례 등 사돈집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쌀이나 떡으로 부조를 많이 해 줬다. 이때 사용하는 그릇이 '사돈구덕'¹²⁾이다. 사돈집에 쌀 따위를 넣어 가지고 갈 때 들고 가는 그릇이어서 '사돈구덕'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다. '사돈구덕'은 보통 'ㄹ는대'로 곱게 걸어 만들었다. 'ㄹ는대'로 만들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구덕은 'ㄹ는대구덕', 또는 'ㄹ는대들름구덕'이라고 하고, 지고 다니는 구덕은 'ㄹ는대질구덕'이라고 부른다.



<사진 11> 아기구덕.

2.3.9. '소포구덕': '소포구덕'¹³⁾은 소포로 붙일 물건을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구덕 이름이다.

2.3.10. '아기구덕, 애기구덕': '아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대오리로 기다랗게 엮어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그릇이어서 '아기구덕, 애기구덕'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진 12> 양태구덕(왼쪽).

2.3.11. '양태구덕': '양태구덕'은 '양태'¹⁴⁾를 걸을 때 받침대로 사용하는 구덕이다. 구덕 두 개

12) 제주시 도련2동에서 수집한 어휘이다.

13) 제주시 도련2동에서 수집한 어휘이다.

14) 양태는 '갓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갓의 머리를 감싸는 '모자' 부분은 말총이나 쇠총으로 만들고, 갓의 밑 둘레인 '양태'는 대오리로 결는다. <사진 12>의 왼쪽 사람이 양태를 걸고 있다.

를 바닥으로 붙여서 찐다. '텅에구덕'이라고도 하는데, '텅에'는 표준어 '둥우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3.12. 탕간구덕: '탕간구덕'은 탕건을 걸을 때 받침대로 사용하는 구덕이다. '탕간'은 '탕근'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탕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3> 테왁구덕.

2.3.13. '테왁구덕': 잠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테왁'을 넣고 다니는 구덕이다. 지고 다니는 구덕이어서 '질구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좁네구덕', '해녀구덕'과 같은 것인데 '구덕'에 넣는 내용물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2.3.14. 팻구덕: '팻구덕'은 '패+ㅅ+구덕'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갯가에 둘러막은 돌담 안에서, 또는 후릿그물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잡은 물고기를

끌고루 나눌 때 고기의 분량을 가늠하는 구덕이다. 이것은 구좌읍 하도리 후릿그물 동아리들의 공동 소유의 것이었다. '패'는 한자어 '표(標)'에서 온 말인 듯하다. 질구덕보다 크다. '주근디'(섬다래)로만 제주도의 '구덕'처럼 걸어 만들었다.¹⁵⁾

2.3.15. 돌방에 ㄱ는대구덕¹⁶⁾: '돌방에+ㄱ는대+구덕'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다. '돌방에'(연자매)에 'ㄱ는대구덕'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말로, 연자매에서 방아를 짚어낼 곡식이나 짚어낸 곡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가는 대오리로 걸은 그릇을 말한다.

15) 고희민, 앞의 책, 169쪽. 부분 생략.

16) 위의 책, 38쪽 참조.

2.3.16. ‘송키구덕, 송키바구리, 송키돌랑지’: ‘송키구덕, 송키바구리’는 푸성귀를 뜻하는 ‘송키’를 채취하거나 ‘송키’를 물에 씻어 건질 때 사용하는 구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키구덕’과 ‘송키바구리’는 사용 방법에 따라 ‘출구덕’이라고 하기도 한다. ‘송키돌랑지’는 ‘조레기(조라기), 조락(조럭)’이라고 부른다.

2.3.17. ‘줍녀구덕, 해녀구덕’: ‘줍녀구덕’과 ‘해녀구덕’¹⁷⁾은 잠녀들이 물질 갈 때 지고 가는 구덕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사용 주체를 앞세워 붙인 ‘질구덕’의 다른 이름이다.

2.3.18. ‘메역구덕’: ‘메역구덕’은 주로 물질한 ‘메역’을 넣어서 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그릇 이름이다. ‘메역’은 표준어 ‘미역’의 제주어다. ‘메역구덕’은 구덕에 주로 미역을 담아 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앞세워서 이름을 붙인 경우다.

2.3.19. ‘톨구덕’: ‘톨구덕’은 ‘톨’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구덕이다. ‘톨’은 표준어 ‘뚝’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출구덕’에 넣는 재료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인 것이다.

2.3.20. ‘고사리구덕’: ‘고사리구덕’은 고사리를 캐러 다닐 때 허리에 차고 다니는 ‘출구덕’이다. 고사리를 채취할 때 사용한다고 해서 ‘고사리구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3.21. ‘토신제 2는대구덕’¹⁸⁾: 이 구덕은 토신제 지낼 때 제물 따위를 넣어서 지고 다니는 가느다란 대오리로 네모나게 걸어 만든 그릇이다.

17)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수집한 구덕 이름이다.

18) 위의 책, 38쪽 참조.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수집한 구덕 이름이다.

2.4. 크기에 따른 이름

제주 사람들은 크기에 따라서도 '구덕' 이름을 붙였다. 보통의 바구니를 그냥 '구덕'이라고 한다면, 중간 크기의 바구니는 '중구덕'이라고 불렀다. 또 지고 다니는 바구니로서 중간 크기이면 '중질구덕'이라고 한다. '정의'¹⁹⁾에서 사용하는 중간 크기의 구덕은 '정의중구덕'이라고 불렀다. 구덕의 크기는 구덕의 높이와 바닥의 넓이에 따라 크고 작음을 나타낸다. 구덕의 높이는 보통 손가락을 펴서 재었다. 가장 작은 바구니는 '한 조리'(집계뽐), 보통은 '한 뽐'(한 뽐), 큰 것은 '한 뽐하고 한 므작(마디)' 정도로 잡았다고 한다.²⁰⁾ 가장 작은 '조레기'는 '한 조리', '출구덕'은 '한 뽐', '질구덕'은 '한 뽐 한 므작' 크기로 했다고 한다.

2.4.1. '큰대구덕': 대나무로 만든 그릇으로서, 크기가 보통보다 큰 구덕을 가리킨다.

2.4.2. '큰ᄃ는대구덕, 큰ᄃ는대구덕': '큰ᄃ는대구덕, 큰ᄃ는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어 만든 구덕인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ᄃ는대구덕'보다 큰 구덕을 말한다.

2.4.3. '중구덕, 중질구덕, 정의중구덕': '중구덕'은 크기가 중간 크기의 구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중질구덕'은 크기가 중간이면서 물건을 넣어 지고 다니는 구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의중구덕'은 정의지역, 즉 성읍리 일대에서 사용하는 중간 크기의 구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제주읍·정의현·대정현 삼읍 체제였던 시절, 정의현청이 있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변을 말한다.

20) 강정희·김순자,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구덕·차롱』,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08, 151쪽.

2.4.4. ‘말찬부지ㄴ대구덕’: ‘말찬부지ㄴ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은 그릇으로 이웃이나 친척집에 대소사가 생겼을 때 부조를 할 쌀이나 떡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제주에서는 큰 부조는 쌀로 했다. ‘말찬부지’는 보통 ‘쌀 한 말을 들고 가는 부조’를 말한다. ‘말찬’은 ‘한 말이 차는’의 의미로, ‘말찬부지ㄴ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쌀 한 말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결은 그릇’을 말한다.

2.4.5. ‘석뒤편부지ㄴ대구덕’: ‘석뒤편부지ㄴ대구덕’은 가는 대오리로 결어 쌀 석 되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든 그릇을 말한다. ‘말찬부지ㄴ대구덕’보다는 작은 크기로 쌀 석 되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2.4.6. ‘조막구덕’: ‘조막구덕’은 ‘조막+구덕’의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그릇의 크기가 조막손만큼 작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아주 작은 구덕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그릇 이름이다.

2.4.7. ‘조락, 조력, 조라기, 조레기, 조락바구리’, ‘돌랭이, 돌랑지’: ‘조락, 조레기, 돌랭이, 돌랑지’는 ‘작다’는 의미가 담긴 어휘다. 단독으로 작은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쓰임새와 사용 방법 등을 나타내는 형



<사진 14> 조레기.

태소와 결합해서 쓰이기도 한다. ‘조락’과 ‘조레기’는 ‘작다’는 의미의 ‘줄다’의 어간 ‘줄’에 축소사 ‘-악/-역’, ‘-아기/-에기’가 붙어서 이루어진 어휘다. ‘조락바구리’는 ‘작은 바구니’라는 의미이다. ‘돌랭이, 돌랑지’도 ‘작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제주에서는 작은 발뺨기를 가리킬

때도 ‘돌랭이’라고 한다. ‘돌랭이’는 ‘드르갱이’ 형태로도 나타난다.

2. 5. 모양에 따른 이름

2.5.1. '동이구덕, 동의바구리, 떡동이': '동이구덕', '동의바구리'²¹⁾는 구덕 모양이 동이처럼 생겨서 바닥은 네모나지만 둥근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동이'는 떡을 담은 동이 모양의 그릇으로 '떡돌랭이', '바농상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구덕의 다른 이름이다.

3. 제주도 '차룽' 이름

'차룽'은 표준어 '채룽'에 해당한다. 채룽은 '채+룽(籠)'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채룽'을 “껍질 벗긴 싸릿가지나 버들가지로 결어서 함 모양으로 만든 채그릇”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채'는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가는 나무오리'를 뜻하고 '룽(籠)'은 “버들채나 싸리채 따위로 함같이 만들어 종이로 바른 상자”(『표준국어대사전』)를 일컫는다.

- 채룽(荊籠)<역어유해下:14b>
- 혼 나귀톨 모라 두 채룽에 대초 다마 싯고 가더니<老乞上:26a>

그런데 제주도의 '차룽'은 싸릿가지 대신 대오리로 결은 대그릇으로, 뚜껑이 없는 '구덕'과 다르게 뚜껑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역주영인 화음방언자의해』에 의하면, “또 살피건대 중국어에 소위 형룽(荊籠)이라는 것은

21) 고광민(2000)은 『한국의 바구니』에서 영평동 강씨가 '바농상지'로 사용하는 바구니를 친정인 애월읍 광령리에서는 '동의바구리'라고 한다고 했다. “제주시 동쪽 마을에서 나오는 바구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제주도 제주시 도련동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의바구리'가 '동쪽에서 생산한 바구니여서 붙여졌다'는 해석보다는 '동의바구리'를 '동이바구리'로 표기하고, 그 모양이 동이 모양의 둥근 모습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우리말에 소위 '채룽'이니 荊은 곧 가시나무요, 荊字는 옛 중국어에 음이 '강'이었으나 와전되어 '가'요, 楚字는 옛 중국어에 음이 '차'였으나 와전되어 '채'인 고로 '채룽'이 되었다."²²⁾는 글 속에서 '차룽'의 어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제주도 '차룽' 이름은 가시나무로 결은 함이라는 뜻의 '차룽'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제주에서 그릇을 결는 재료로는 가시나무 대신 대오리를 사용했다. '차'는 또 표준어 '채'로 어형이 바뀌어 그 의미도 '가시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싸리나무나 버드나무, 대나무 같은 것의 가는 나무오리'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차룽>채룽' 형태로 어형이 바뀐 것을 보면, 제주어 '차룽'이 표준어 '채룽'에 앞서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차룽'은 지역에 따라 '채룽', '상지', '고령', '차반지', '밥당석'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차룽'은 뚜껑이 달린 대그릇인데, 아래쪽은 '알착' 또는 '이몸'²³⁾이라 부르고, 위쪽은 '위착' 또는 '뚜께'라고 부른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쪽에서는 '차룽, 채룽'이 우세하고, 서귀포 호근동은 '차룽'과 '상지', 성읍과 남원·신흥 지역은 '고령'과 '차룽', '상지'가 많이 관찰된다.

제주도의 '구덕'은 대나무 외에도 덩굴 식물을 이용해서 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제주도의 '차룽'은 대나무로만 결는 것이 특징이다. '구덕'이 다양한 물건을 넣어서 운반할 때 많이 썼다면 '차룽'은 음식물 따위를 넣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와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차룽'의 명칭은 35가지²⁴⁾였다. 마을을 넓혀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차룽' 이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 “又按華語所謂荊籠卽我語所謂채룽荊卽楚木也荊字古華語有강音訛가楚字古華語有차音訛채故曰채룽也.” 黃胤錫 原著·姜憲圭 譯註 『譯註影印 華音方言字義解』, 三光出版社, 1996, 23쪽.

23) '이몸'과 '뚜께'라는 말은 남원읍 신흥2리에서 조사된 어휘이다.

24) '바리차룽'과 '바리채룽'과 같은 이형태는 하나의 이름으로 간주했다.

- **제주시 도련2동**: '고기차롱', '고령차롱', '동고령', '떡고령', '떡차롱(떡채롱)', '제물차롱', '바르차롱', '밥동고령', '밥차롱(밥채롱)', '적차롱', '큰차롱' 등 11가지.
- **서귀포시 호근동**: '고령찰', '동고령(동그령)', '동고령찰(동그령찰)', '바리차롱(바리채롱)', '밥차반지', '상지', '상지찰', '제물상지', '제물차롱', '차반지', '테우리차반지', '합상지' 등 12가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25**: '밥차롱(밥채롱)', '중차롱', '중차반이', '테우리차반지', '밥당석', '밥동고량', '적차롱', '합상지', '상제제물떡차롱', '일웨고령', '쾌기차롱', '바르차롱', '이버지차롱', '고령상지' 등 14가지.
- **제주시 건입동**: '고적차롱', '물떡차롱', '밥차롱', '족은차롱', '큰차롱', '차반지' 등 6가지.
- **한경면 조수2리**: '동고량차롱', '떡차롱', '밥차롱', '지물차롱' 등 4가지.
- **기타(한림읍 동명리)**: '쾌기차롱'

위의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차롱'은 음식을 넣는 그릇임을 알 수 있다. 그 쓰임새에 따라 '밥차롱', '떡차롱', '쾌기차롱'과 같이 '차롱' 이름을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크기와 사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1인용 또는 2인용 도시락은 '동고령, 동그령'이라 불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밥당석'이라 하기도 한다. '구덕' 이름이 5가지 분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반면 '차롱'은 1)크기와 2)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차롱' 이름이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5) 신흥2리 지역의 차롱 이름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이름과 조사되지 않은 이름은 고팡민(2000)의 앞의 책에 수록된 이름도 참고하였다.

3. 1. 크기에 따른 이름

3.1.1. ‘족은차룡, 중차룡, 큰차룡’, ‘중차반이’: ‘차룡’을 크기별로 구분해서 쓰는 이름이다. ‘차룡’은 쓰는 사람과 쓰임새에 따라 ‘차룡’의 크기를 달리해 만들어 썼다. ‘족은차룡’은 ‘차룡’의 크기가 작은 것이고, ‘중차룡’은 중간 크기, ‘큰차룡’은 크기가 큰 것을 말한다. ‘중차반이’는 밥을 넣는 대그릇인데 중간 크기인 것을 말한다. ‘차반이’는 ‘차반지’라고 말하는데, 음식, 즉 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그릇이다.

3.1.2. ‘동고령, 동그령, 동고령착, 동그령착’, ‘고령상지’: ‘동고령, 동그령, 동고령착, 동그령착’은 대오리로 엮은 도시락을 말한다. 1인용 또는 2인용 크기의 도시락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동고령, 동그령’은 ‘동+고령(그령)’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동’의 정확한 뜻은 확인할 수 없다. ‘동고령’은 ‘동고령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차룡’이 위, 아래가 짝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착’은 표준어 ‘짝’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차룡’의 한 짝을 ‘차룡착’이라고 하고, ‘차룡’의 아래쪽을 ‘알착’ 또는 ‘이몸’, 위쪽을 ‘우착’ 또는 ‘뚜께’라고 한다. ‘고령상지’는 ‘자그마한 크기의 차룡’이라는 뜻이다.

3. 2. 용도에 따른 이름

3.2.1. ‘고기차룡·궤기차룡’: ‘차룡’은 평상시에 쓰는 그릇이 아니다. 제사 등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쓰거나 밭에 일을 갈 때 ‘밥’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특별한 용도의 그릇’이다. 제주에서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다. 이때 손님에게 대접할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서 넣어두는 그릇이 ‘차룡’이다. ‘고기차룡·궤기차룡²⁶⁾’은 주로

26) 한림읍 동명리에서 고광민이 조사한 ‘궤기차룡’은 큰일 때 손님에게 대접할 고기를 썰어서 담아 넣을 때 사용하는 채룡인데 반해 필자가 남원읍 신흥2리에서 조

큰일이 있을 때 손님에게 대접할 돼지고기를 담아둘 때 쓰는 대그릇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퀘기차롱'은 또 바닷고기를 말리는 용도로도 사용한다.

퀘기차롱 친 돌양은에 퀘기 사당은에 돌아메서. 제사 허젠 허민 퀘기 사오민 퀘기차롱에 넣은에 물리왕은에 공장에 돌아멧당 제사 당허민 쓰메(고기채롱 끈 달아서 고기 사다가 달아매. 제사 하려고 하면 고기 사오면 고기채롱에 넣어서 말려서 말코지에 달아맷다가 제사 당하면 쓰지.).²⁷⁾

3.2.2. '적차롱': '적차롱'은 제를 지낼 때 상에 올릴 '적(炙)'을 담아두는 그릇이다. '적'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따위를 양념하여 대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을 말한다. "적차롱은 좀 크주. 영 네 귀 나겔 아녕 소랑허게."(적채롱은 좀 크지. 이렇게 네 귀가 나지 않고 기름하게.)²⁸⁾에서 보듯이 '적차롱'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지만 크기가 보통의 채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5> 떡차롱.

3.2.3. '떡차롱, 떡채롱, 떡고령': '떡차롱, 떡채롱, 떡고령'은 주로 떡을 담아두는 채롱이다. '떡고령'은 주로 표선과 남원 등지에서 많이 쓰는 어휘다. '고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는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3.2.4. '물떡차롱': '물떡'을 넣을 때 사용하는 대그릇이다. '물떡'은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그 안에 팔소나 무채 등을 넣고 만두처럼 빚어 삶아낸 후 그 위에 팔고물을 묻혀낸 떡이다. '물떡'은 주로 장사를 지낼 때 장지에

사한 '퀘기차롱'은 '생선을 말릴 때 사용하는 채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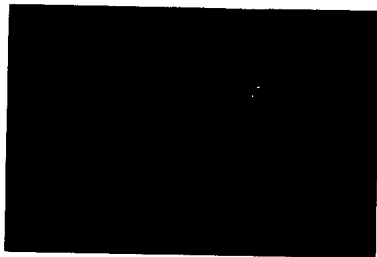
27) 현재숙 구술.

28) 현재숙 구술.

간 상두꾼들을 먹일 용도로 해 가는 떡으로 제주시와 제주시 동부 지역에 서 많이 사용한다. 이 ‘물떡’을 넣어 가지고 갈 때 사용하는 채룽이 ‘물떡차룽’²⁹⁾이다.

3.2.5. ‘고적차룽’: ‘고적차룽’은 일가에 초상이 났을 때 부조로 해 가는 떡을 담고 갈 때 쓰는 그릇이다. ‘고적’은 ‘일가에 초상이 났을 때 해 가는 부조’라는 뜻으로, 떡으로 부조를 하면 ‘고적떡’, 쌀로 부조를 하면 ‘고적쌀’이라고 한다.

3.2.6. ‘제물상지, 제물차룽, 지물차룽’, ‘상지, 상지착’, ‘상제제물떡차룽’: ‘제물상지, 제물차룽, 지물차룽’은 제사나 명절 등 제를 지낼 때 제물을 넣어서 가지고 가는 채룽을 말한다. ‘제물상지’는 제물을 넣어 가지고 가는 ‘상지’ 즉 제물을 넣는 상자라는 뜻이고, ‘제물차룽, 지물차룽’은 제물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채룽이라는 뜻이다. ‘지물’은 제물의 이형태인데, ‘제물, 지물’은 주로 제사 때 해가는 부조떡을 말한다. ‘상제제물떡차룽’은 “상주들이 부모 제사 때 제물로 올릴 떡을 정성스레 해서 담아 가지고 가는 ‘차룽’이라는 말이다.”³⁰⁾



<사진 20> 합상지와 제물차룽(오른쪽).

3.2.7. ‘합상지’: ‘합상지’는 대오리로 네모나게 결은 뚜껑 달린 그릇으로 ‘제물차룽’보다 크게 만들었다. ‘제물상지’, ‘떡고령’ 따위에는 내용물을 한 가지만 담는 반면 ‘합상지’는 그릇 하나에 제물로 쓰는 여러 가지 떡을 담을 수 있게 크게 만든 대그릇이다.

‘합상지’는 쌀 한 말 어치 분량의 떡이 들어가는 크기의 대그릇이다.

29) 제주시와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30) 고광민(2000) 앞의 책, 61쪽.

3.2.8. '일렛고령': '일렛고령'은 '이렛날에 가는 당³¹⁾'에 갈 때 제물을 넣어 가지고 가는 대그릇을 말한다. '일렛'은 표준어 '이레'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이렛날에 가는 당을 제주에서는 '일렛당', 여드렛날에 가는 당을 '여드렛당'이라고 한다. '일렛고령'은 '뽕떡 으남은'(뽕 여남은) 개 담을 수 있는 크기³²⁾라고 한다.

3.2.9. '밥동고랑, 밥동고령', '밥차롱(밥채롱)', '밥차반지', '밥당석': '밥동고랑, 밥동고령'은 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을 말한다. '밥차롱, 밥차반지'도 밥을 넣어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채롱이다. '차반이'는 '차반지'라고도 한다. '밥차반지'는 음식, 즉 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그릇이다. '밥당석'은 '밥+당석'으로 이루어진 어휘로, '밥을 담은 당석', 즉 밥그릇을 말한다. '동고령'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3.2.10. '바르차롱, 바리차롱, 바리채롱': '바리차롱'은 소 길마에 음식을 신고 갈 때 사용하는 뚜껑달린 대그릇이다. '바리차롱'은 주로 사돈집에 상례나 혼사가 있을 때 그 안에 떡이나 이바지 등을 넣어서 소 길마에 신고 다닐 수 있도록 대오리로 네모나게 결어서 만든 그릇이다. "사돈집에 상이 나면 정심을 출령 가든가 피력을 출령 가든가 할 때 옛날 차 없을 때는 바리차롱에 담양 췌질메 지왕근에 간다(사돈집에 상이 나면 정심을 차려서 가든가 피력을 차려서 가든가 할 때 옛날 차 없을 때는 바리채롱에 담아서 소 길마 지워서 간다.)"³³⁾, "바르차롱 고기 잡아 놓는 거. 웨야지 집의서 잡아 놓을 때에 그릇이 엇어놓난 그런 것에 담양 숯양 먹고. 이버지차롱이라고 옛날은 웨야지 혼 머리가 거기 다 들어가. 그 웨야지께 기 새각시 집의 아저갓주. 우리 형님이 결혼할 때 아시날 그 보내는 걸

31)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수호해 주는 신(神)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 제주에는 '당 오백 절 오백'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마을마다 당이 있었다.

32) 양입출(남원읍 신흥2리, 1918년생), 2009년 6월 23일 구술.

33) 김희창 구술.

봐낫주(바리채롱 고기 잡아서 넣는 거. 돼지 집에서 잡아서 넣을 때에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담아서 삶아서 먹고. 이바지채롱이라고 옛날에 돼지 한 마리가 거기 다 들어가. 그 돼지고기 신부 집에 가져갔지. 우리 형님이 결혼할 때 전날 그 보내는 것을 봤었지.)”³⁴⁾라는 구술 자료 속에서 ‘바리차롱’의 용도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바리’는 ‘마소의 등에 실은 짐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바리차롱’ 두 개를 한 바리라고 한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바르차롱, 바리채롱’이라고 한다.

3.2.11. 테우리차반지: ‘둥고령’이 1~2인용 도시락이라면 ‘테우리차반지’는 꼴을 베러 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의 밥을 담을 수 있는 채롱이다. ‘테우리+차반지’로 분석할 수 있다. ‘테우리’는 목동을 뜻하는 제주어고, ‘차반지’는 ‘밥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그릇’이다. ‘테우리차반지’는 ‘테우리’들이 꼴을 베러 갈 때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밥을 넣어 가지고 가는 대그릇이다.

3.2.12. 이버지차롱: ‘이버지차롱’³⁵⁾은 ‘이버지’, 즉 이바지로 보내는 돼지고기 삶은 것을 담아서 보낼 때 사용하는 채롱이다. 보통 돼지 한 마리를 분육해 담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제주에서는 신부 집이 가난하면 결혼식에 쓸 음식인 돼지고기, 계란, 술 따위를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4. 결론

제주 사람들은 ‘족대’, ‘수리대’라 부르는 ‘이대’를 이용하여 대그릇을 많이 만들어 썼다. 대표적인 대그릇이 ‘구덕’과 ‘차롱’이다. ‘구덕’은 달리 ‘바구리, 바굽지’라고도 하는데, 구덩이를 뜻하는 ‘굳’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억’이 붙어 파생된 명사로 모양이 구덩이처럼 안이 움푹 들어가 있어

34) 현재숙 구술.

3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에서 조사된 ‘차롱’ 이름으로, ‘바르차롱’의 다른 이름이다.

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룽'은 재료를 뜻하는 '차'에 '농'(籠)이 합성된 합성 명사다. 이 '구덕'과 '차룽'에 대해 제주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저마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다.

'구덕'은 재료, 크기, 모양, 용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름이 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방법에 따른 '구덕' 이름은 '출구덕', '멜구덕', '들름구덕', '질구덕' 등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차룽'은 '채룽, 고령, 상지'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세분화되고 있다. '떡'을 담는 뚜껑 달린 대그릇은 '떡차룽, 떡고령', 밥을 담는 뚜껑 달린 대그릇은 '밥차룽, 밥차반지', 제물을 담는 뚜껑 달린 대그릇은 '제물차룽, 제물상지' 등으로 나타난다. 도시락도 '동고령, 동고랑, 밥당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사 지역의 한계로 제주도의 '구덕'과 '차룽' 이름을 다 아우르지 못했다. 지역적인 차이를 상세하게 논의하지도 못했고, '구덕'과 '차룽'에 담긴 문화적 특성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핵심어: 구덕, 바구니, 차룽, 채룽, 대나무, 대오리

<참고 문헌>

- 고광민, 『한국의 바구니』,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고광민, 「구덕과 차룽」, 『제주학』 3호, 제주학연구소, 1999, pp.181~197.
강정희·김순자, 『2008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I-구덕·차룽』,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08.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4.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고려민족문화연구소, 1988.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제주도, 『제주도지』, 1993·2006.
제주도, 『제주의 민속문화』IV, 1996.
제주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009.
현평효 외,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 정연사, 1962.
황윤석 저·강헌규 역주, 『華音方言字義解』, 삼광출판사, 1995.

<제보자>

- 고봉만(1930년생, 제주시 건입동, 제주시 영평동 출신)
고성수(1928년생, 제주시 도련2동)
김성욱(1926년생,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김희창(1941년생, 서귀포시 호근동, 남원읍 하례리 출신)
문병혁(1928년생, 제주시 도련2동)
양임출(1918년생,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이옥춘(1932년생,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한경면 용당리 출신)
현재숙(1920년생,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Abstract>

Different Names for Jeju's 'Gudeok' and 'Charong'

Kim Soon-ja

The people of Jeju have used baskets called 'Jokdae' or 'Suridae' which are made of bamboo. Among those bamboo baskets are 'Gudeok' and 'Charong'. 'Gudeok' is also named 'Baguri' or 'Bagumji'. The name 'Gudeok' formed from two morphemes: 'gud' meaning a hollow and a nominal suffix '-eok'. 'Gudeok' has its name because it has a hollow space for storing. The name 'Charong' consists of 'cha' meaning 'tea' and 'rong' meaning 'bamboo'. The types and names for 'Gudeok' and 'Charong' vary from region to region in Jeju.

There are several names of 'Gudeok' depending on material, size, shape, function and how to carry. Each of them has its own name. There are 83 different names for 'Gudeok' including 'Cholgudeok', 'Melgudeok', 'Deulreulgudeol', and 'Jilgudeol', named according to how to carry.

'Charong' is called 'Charong', 'Goryeong', or 'Sangji'. The baskets have different names depending on the size and function. A bamboo basket with a cover used to contain rice cake is called 'Ddeok Charong' or 'Ddeok Goryeong'; a bamboo basket with a cover for storing boiled rice is called 'Bob Charong' or 'Bob Chabanji'; a bamboo basket for sacrificial food offerings is called 'Jemul Charong' or 'Jemul Sangji'. Including bamboo baskets used as a lunch box named 'Dong Goryeong', 'Dong Gonyang', or 'Bob Dangseok', there

are 35 names for 'Charong' in total.

This study does not make an exhaustive investigation into all the types and names of 'Gudeok' and 'Charong' in Jeju because the regions surveyed are limited. It also does not cover regional differences more specifically, nor does it find out cultural features, leaving a subsequent study followed.

• Key words: Gudeok, basket, Chearong, Charong, bamboo, bamboo strips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